

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 일시 | 2022. 8. 31.(수) | | |
| 담당 부서 <총괄> | 항공정책실 | 책임자 | 팀 장 정순열 (044-201-5202) |
| |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| 담당자 | 사무관 김대현 (044-201-5203) |
| 보도일시 | 2022년 9월 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31.(수) 17:00 이후 보도 가능 | | |

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본격 착수

- 지반조사, 건설공법 등 기술검토 및 사업추진조직 마련 등
신공항 건설계획 구체화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가덕도신공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8월 31일 착수한다고 밝혔다.
-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·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며, 이번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.
-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 기간·건설공법(매립식, 부유식 등)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,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,
 - 특히, 용역 진행상황 및 검토내용을 지자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투명하게 공유하고, 해양 지반조사, 수치모형실험, 건설공법 및 장애물 검토, 운항안전 시뮬레이션 등의 철저한 기술검토도 시행하여,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.
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다는 점,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, 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엔지니어의 면밀한 기술검토를 거쳐 공사기간 단축방안 등 조속한 건설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”이라고 하면서,
 - 신공항 건설 업무를 담당할 사업조직(건설공단 등) 구성 방안도 마련하여 기본계획수립 이후 설계·시공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(‘22.8~’23.8) 과정에서 면밀한 해양 및 육상생태조사를 실시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불가피한 환경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“가덕도신공항은 단순히 부·울·경 지역 주민의 항공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한 공항이 아니라, 신공항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, 부산신항과 연계한 Tri-Port 구현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물류산업의 동반 성장 등 부·울·경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명품 공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의 기술 검토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